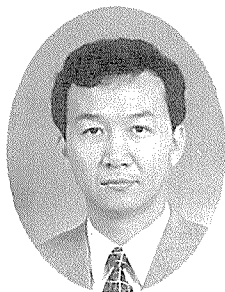


# 업계에서 본 한국의 석유산업



김헌표

〈 SK 석유사업팀 과장 〉

## 1. IMF 체제와 석유산업에의 영향

외환위기로 시작된 한국경제의 어려움은 이제 긴박한 유동성위기는 벗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IMF와 채권국들의 요구를 차치하고서라도 한국자본주의의 전개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누적되어 온 구조개혁의 새로운 요구들이 다가오고 있다.

곧 닥쳐올 국가 경제지표상의 제반 문제들과 그에 부수될 기업의 재무적위기, 그리고 필수적인 구조조정의 과제들은昨수에 진행되고 있는 자발적인 기업구조조정의 노력들을 무색하게 할지도 모르는 예상하고 싶지 않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국내총수입의 15%, 막대한 외화를 소비하는 석유산업이 금번 외환위기 최대의 未必的 희생양이 되었다. 수조원이 넘는 환차손, 국내유가인상에 따른 수요 감소와 그에 따른 가동율저하, 금년 상반기로 앞당겨

진 석유산업의 전면개방에 대비할 겨를도 없이 몰아닥친 이 시련들은, 생존연습으로 치부하기엔 너무나 절박한 현실이다.

가장 안정적인 산업으로 여겨졌던 석유산업이 이제 변화의 침병으로 내몰리고 있고, 국가 기간산업으로 여겨졌던 에너지산업이 흔들리고 있다.

'97년에 발생한 막대한 환차손 중, 국내 물가를 고려하여 작년도 유가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1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고, '98.3월까지도 전액 회수를 못한 실정이다.

'97년 국내 석유류 수요는 '96년 대비 4%가 증가했으나, 석유 화학용 나프티를 제외하면 2% 증가라는 석유위기 이후 최저 증가율을 기록했다. 산업용과 수송용 차량에 주로 쓰이는 경우는 경기침체를 반영한 듯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다.(표 참조)

'98년에는 수요 감소가 필연적이며, 이러한 여파로

### 국내 석유류 수요

	1996	1997	1998 *
LPG	188	196	174
Gasoline	186	196	152
Kero	202	216	132
Diesel	473	457	306
B-C	460	465	381
Nap	387	432	468
계	1,976	2,050	1,690

\* 천 B/D, SK(주) 추정

### 아태지역 석유수요

	1996	1997	1998 *
LPG	1.55	1.63	1.72
Gasoline	2.99	3.15	3.29
Kero	1.99	2.05	2.11
Diesel	5.11	5.30	5.51
B-C	3.35	3.38	3.44
Nap	1.78	1.92	2.03
계	16.77	17.43	18.10

\* 백만 B/D, CERA 추정 (98. 3)

경영이 악화된 주유소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어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이 위협을 받을 형편이다. 물론 승용차 사용 감소로 인한 휘발유 수요의 감소는 소비절약차원에서는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경유 등의 수요 감소는 경기침체의 반영인 바, 안타까운 현상이다.

또한 국가신인도 하락에 따른 신용위기는, 국제신용등급 상위권에 있던 대형정유사들의 신용장 개설도 여의치 않게 하여, 은행유전스기일 단축은 물론 추가금리 부담의 압박을 받고 있다.

그 결과 1/4분기 정유사 평균 가동율은 85% 정도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우기 생산량의 20% 이상을 수출해 온 국내 정유업계는 동남아 경제위기에 따른 수출애로와 겹쳐 二重苦를 겪고 있는 셈이다. 동남아의 수요정체는 산유국의 수출용 석유제품들에 비해 한국 수출제품의 경쟁열위를 가중시키고 있으며, 中國의 수입제한은 설상가상의 어려움을 주고 있다.

## 2. '98년도 석유산업전망

금년도 국내 석유류 수요는 작년대비 약 18% 감소한 169만B/D로 전망되고 있고, 수출은 60만B/D로 전망되어 CDU의 Full 가동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장치산업의 특성상 가동을 제고는 평균 제조단가의 하락을 가져다 주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생산증대와 국내의 시장확보를 위한 가격경쟁의 요인은 상존하고 있다.

과거 한국의 석유산업은, 정제능력의 선점과 시장점유율 확대라는 경제원리에서 다소 벗어난 의사 결정으로 인하여 국제경쟁력을 키우지 못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지만, 이는 1996년까지 지속되어 온 국내석유정책 - 즉 소비지정제주의와 정제마진 보장 - 에 따른 결과이었다. 경제위기와 시장개방을 앞두고, 석유산업의 국제경쟁력확보라는 절대절명의 소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금년도 석유산업의 화두가 되고 있다.

한국의 정제 능력은 현재 CDU 기준 2,438천B/D로서 2005년 이후 까지도 공급과잉 상태가 지속될 전망이다. 금년에는 특히 수출마진의 악화로 가동율의

자발적 조절 없이는 정제업의 존립에 위협을 받을지도 모를 만큼의 공급과잉상태가 예상된다.

아시아 석유시장은 한국의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며, 中東 산유국의 제품시장 주도권 확보 움직임 등과 겹쳐 정제마진은 완전균형상태로 수렴할 비관적인 전망이다.

더불어 한국 정제업은 지리적인 환경으로 인해 수출입에 있어 배럴당 0.5\$ 정도의 추가부담을 안고 있는 형편이고, 싱가포르 정유공장대비 제조경비의 열위는 수출마진의 확보를 더욱 어렵게 한다.

금년에는 저유가로 인해 국제 Refining Margin의 일부 호전도 예상할 수 있으나, 上記의 이유 등으로 正의 마진은 운영 Flexibility가 우수한 싱가포르 정제업자들이 先占하고, 마진변동 주기는 매우 짧아질 전망이다.

정제업에 있어 외국회사의 Grassroot Refinery 진출은 현 국내설비능력을 고려할 때 불가능하지만, 기존 정유사인수 및 지분확보 등을 통한 진출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경우 제조경비 절감을 위한 강도 높은 Restructuring은 불가피하며, 이는 타 정유사로 확산되어 금년 내내 정유업계 전체가 부산할 전망이다.

그러나 아직도 원유수입정제가 제품수입보다는 경제적이라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입찰시장 등 수입가대비 경제성이 열악한 시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가동율조절이라는 새로운 운영전략이 확산될 전망이고, Hedging 등 Risk Management의 본격적인 확산이 기대된다. 한편으로는 유티 고정자산 매각 및 물류분야의 재고를 통한 원가절감노력도 다각적으로 시도될 전망이다.

한편, 금년도 국내석유시장은 전망 그 자체가 매우 불투명하며, 이는 예측의 문제라기보다는 개별 정유사의 현실인식과 경영권 변화에 따른 의지의 문제이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아태지역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수출애로 및 마진 악화, 국내수요 감소 등은 각 정유사가 점유율 및 가격전략의 ABC를 경험하고 싶은 욕구를 불러 일으킬 것이며, 더불어 마케팅 MIX의 다양한 시도와 그 효과들도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다.

IMF 한파로 인한 정유사들의 자금압박은 필연적으로 거래조건 강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이미 IMF 이전 대비 상당일수 단축된 외상기일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과거 정유사의 거래관행이었던 시설지원자금, 과도한 외상, 할인판매 등의 가격유사요소들은 점차 축소될 것이며, 경쟁력이 없는 자영대리점과 주유소들은 정유사로 편입되든지 폐업의 운명을 맞게 될 것이다.

금년에도 500개 이상의 주유소가 휴폐업할 것으로 예상되어 국내 주유소 숫자는 작년 말 9,800개를 피크로 점차 감소할 전망이다. 반면 개인주유소들은 마진 확보를 위해 유티판매 외에 수익성 있는 제반 부대사업을 시작하고 셀프주유소시스템 도입을 통해 인건비를 줄이는 동시에, 가격경쟁의 부담을 흡수하는 시도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내년 신규 석유소매업자의 진출은 그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실정이며, 이는 외국사의 기존 석유회사 매입, 대형 주유소병설 할인점의 등장, 또는 외국사와 자영판매업자의 제휴 등의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이는 국내 석유마케팅에 일대 혁신을 가져올 큰 변화이며, 기존의 거래관행과 새로운 유통구조의 대결양상을 띠는 것이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금년 내내 기존 석유판매사들의 새로운 유통질서에 대한 연구가 활발할 전망이다. 예를 들어 유럽의 Commission계약, 일본의 Zone Pricing등이 주요한 연구사례로 등장하고 있다.

### 3. 석유업계의 대응방안

이미 설비 및 시장경쟁의 결과로 정유사가 어려운 처지로 내몰리고 있는 현 석유산업의 현실은, 향후 각 석유회사의 정책의사결정의 기준과 방향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고전적 마케팅관리론에 따른 원가우위에 입각한 가격경쟁은 정유사 전체의 손익악화와 국제경쟁력 확보를 준비하기 위한 자본 축적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원재료비가 85% 이상을 차지하는 정제업의 특성상 매출원가에서의 경쟁력은 거의 비슷한 실정이고, 다만 그룹사간 특성차이로 인한 격차가 가격경쟁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게임이론상의 Nash균형의 가정은 무시된 채 자존심의 경쟁으로 비화되고, 가격경쟁은 마케팅 MIX의 수단이 아닌 경쟁력 훼손의 도구로 전락되어 왔다.

이제 완전개방을 앞둔 시점에서 소모적인 가격경쟁보다는 소비자 Value 창출을 통한 Customer Intimacy라는 마케팅전략의 질적향상을 통해, 정유사 모두와 소비자의 Win-Win Game을 추구하는 전략방향의 수정이 요구되고 있다.

그리하여 부판 등 유통질서를 스스로 교란시키는 판매관행을 자제하고, 한편으로는 제반 시장비용의 감축 및 통합과 더불어,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는 새로운 계약형태를 연구하는 프로그램을 정유사 공동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국내시장에서 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에서도 무차별 수출로 각국으로부터 비난을 받던 과거 관행을 탈피하여, 아태지역의 Main Player로서 역내 정제마진을 공

동책임지는 성숙한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운영최적화를 바탕으로 한 가동율의 탄력적 운영이 필수적이다.

이와 함께 상류부문이 거의 없는 국내 정유업의 현실에 비추어, 국내의 정제마진과 수출입 時差, 재고 Risk 등을 종합관리할 수 있는 Risk Management의 확대와 수준향상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외국에서는 이미 일반화되고 있는 물류분야의 제휴는 원가절감 뿐 아니라 국가경쟁력차원에서도 필히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다. 이미 곳곳에서 이러한 노력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제품교환 확대의 차원을 넘어 저유소 공동이용, 공동수송, 공동물류회사 설립, 상호위탁생산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위기하에서의 경쟁, 개방화시대의 경쟁은 더이상 설비확보를 통한 시장확대 경쟁은 아니며 가치창출과 전략의 경쟁이다. 이를 통해 국내 정유사의 Value와 국제경쟁력을 높여, 개방으로부터 국가 기간산업을 보호하는 것이 우리 석유업계에 종사하는 모든 임직원의 사명이며 임무인 것이다. 이러한 제반 과제들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석유업계 주도의 공동연구나 세미나 등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 4. 정부의 에너지정책

정부도 한국석유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개방에 대비하여 최소한의 Energy Security는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메이저등 신규진입자에 대한 비축의무 및 품질관리 등을 강화하여

기간산업이 外資의 이익논리에 좌우되는 일은 적어도 방지해야 할 것이다.

정유업계의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제반 시장비용의 축소로 야기되는 유통업계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유통마진 현실화를 유도할 필요도 있다.

더불어, 정유사들이 유통계열화를 강화하여 신규진입자의 유통시장 혼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한편, 에너지원의 다각화를 위한 노력중 자금압박에 봉착한 국내 정유사에 대한 자금지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석유제품 Bottom을 활용한 중유발전과 환경문제를 동시에 고려한 IGCC(Integrated Gasification Combined Cycle) 발전 및 가스사업으로의 다각화 등은 국가 에너지정책 차원에서 민간참여가 절실한 프로젝트들이다.

또한 에너지원간의 가격구조 왜곡으로 발생하는 낭비적인 설비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투자비와 에너지가격, 환경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장 합리적인 에너지가격구조와 관련세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경제발전과 에너지소비는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환경문제를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하여 다루는 시각도 필요할 것이다.

## 5. 맺는말

개방과 외환위기에 봉착한 국내 석유산업은 유사 이래 가장 어려운 시기에 처해 있으며, 원가절감과 S/W 분야의 국제경쟁력확보는 개별 석유회사의 구조개혁 문제를 넘어 국가 기간산업의 존망이 걸린 중요한 과제로 다가오고 있다.

이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금년 석유업계에 필요한 전략은, 가격경쟁을 통한 생존 연습이 아니라 구

조조정과 관리수준의 혁신을 통한 철저한 체질개선에 틀림없다.

이를 위해 각 정유사 및 유통업계는 공정한 게임의 룰을 개발하고, 공동 노력을 통한 원가절감 및 산업전체의 가치창출이라는 새로운 석유산업시대를 열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제반 필요한 제도나 법적 장치를 통해, 국내 석유산업이 빠른 시일내에 국제경쟁력을 갖추어 국내 에너지산업의 파수꾼으로 다시 우뚝 설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아직도 에너지산업은 국가의 존망이 걸린 기간산업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

## 용어해설 : 뮤추얼펀드(Mutual Fund)

### -일반에 주식발행 돈모아 증권투자하는 회사-

미국에서 일반화한 투자신탁 펀드로 증권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주식을 일반인이 사는 형태로 투자가 이루어진다.

펀드매니저(자금운용 전문가)의 운용실적에 따라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지만 손실이 발생하면 원금조차 손해보는 고수익·고위험 투자신탁 방식이다.

오픈 엔드(Open-End)형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언제든지 뮤추얼 펀드의 주식을 시가대로 매매할 수 있고 회사의 주식수도 수시로 변한다.

뮤추얼 펀드는 투자방법에 따라 △보통주 펀드 △균형 펀드 △수익 펀드 △우선주 펀드 등으로 분류되는데 이중 보통주 펀드의 규모가 가장 크다.

뮤추얼 펀드가 운용하는 각종 투자자금은 90년 1조달러를 넘어선 데 이어 지난해 말에는 4조 5,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현재 미 증시에서 운용중인 뮤추얼 펀드는 7,000개 이상이며 운용수익률이 높기로 유명한 것도 100여개에 이른다.